

## 쿠팡 시총 100조, 알리바바 이후 외국기업 최대규모

### 김범석 “혁신에 투자하겠다”

(쿠팡 회장)

11일 시초가 63.50달러 거래시작 장중 최고 69달러까지 오르다 하락 국내 상장기업중 시가총액 3위 규모 5조원 조달로 적자 해소·투자 확대 해외보다 국내 경쟁력에 우선 집중



쿠팡이 미국 증시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11일(현지시간)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상장기념 ‘오프닝 벨’을 울리고 있는 김범석 회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쿠팡 경영진. 사진제공 | 쿠팡

쿠팡이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NYSE)의 오프닝 벨을 성공적으로 울렸다. 시가총액이 무려 100조 원에 달한다. 2014년 중국의 전자상거래(e커머스) 기업 알리바바 이후 미국에 상장된 외국 기업 중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다. 김범석 회장은 확보한 자금을 “혁신에 계속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5조 실탄 확보 “투자 계속”

쿠팡은 11일(현지시간) 공모가보다 81.4% 높은 63.50달러(시초가)로 거래를 시작했다. 장중 69달러까지 올랐다. 49.2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쿠팡의 시가총액은 886억 5000만 달러(약 100조 원)에 달한다. 12일에는 소폭 내린 48.47달러로 장을 마감하며, 시가총액 872억 달러(약 99조 원)를 기록했다. 단순 비교하면 국내 증시 상장 기업 중 삼성전자(약 494조 원·12일 종가 기준)와 SK하이닉스(약 102조 원)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높다. LG화학, 네이버, 현대차도 훌쩍 넘어선다. 수조 원 대인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 신세계, 이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 기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다.

쿠팡은 이번 IPO로 45억 5000만 달러(약 5조 원)를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 적자를 해소하는 동시에 추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까지 마련한 셈이다. 쿠팡은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김범석 쿠팡 의장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혁신에 계속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송 시스템 등 기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지속한다는 설명이다. 쿠팡은 이와 관련해 추가로 7개의 풀필먼트 센터를 구축하고, 2025년까지 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분간 국내 시장에 전념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장기적으로는 해외 시장 진출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국내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좀 더 집중한다는 설명이다.

국내에서 진행 중인 인수합병 건과 관련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으면 안하는 편”이라며 일단 선을 그었다.

#### ●지속된 적자에도 독심 투자

쿠팡의 이번 상장은 김범석 의장의 독심이 빚어낸 결과물이다. 미국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보스턴컨설팅그룹 등에서 일하던 김범석 의장은 하버드 경영대학원(MBA)에 재학 중이던 2010년 쿠팡을 설립했다. 김 의장이 사업 초기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한다는 목표를 내놨을 때, 이것을 실제로 이루어 내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쿠팡은 소셜커머스 붐을 타고 위메프, 티몬 등과 경쟁하며 성장했다. e커머스의 전환도 성공적이었다. 쿠팡의 핵심 성장 동력은 정보기술(IT) 집적 대규모 물류를 통한 빠른 배송이었다. 2014년 선보인 ‘로켓배송’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짧아도 3일, 길면 일주일도 넘게 걸리던 상품을 주문한 바로 다음 날 받아볼 수 있는 로켓 배송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반면 사업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

쿠팡 개요	
시가총액 (12일 종가 기준)	▶ 872억 달러(약 99조 원)
2020년 실적	▶ 매출 119억 7000만 달러 (약 13조 원)
누적 적자 (약 436000억 원-2020년 말 기준)	▶ 약 41억 달러

다. 대규모 투자에 따른 손실이 컸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쿠팡의 누적적자는 41억 달러(약 4조 6000억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한 우려가 나올 때마다 김 의장은 “계획된 적자(투자)”라고 잘라 말했다.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로부터 2015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총 30억 달러의 투자를 받은 것도 사업을 독심 있게 밀어붙이는 원동력이 됐다. 쿠팡은 이를 기반으로 전국 30개 도시에 150개 물류센터를 지었고, 전국 단위의 로켓배송을 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배달(쿠팡이츠)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쿠팡플레이) 등 새로운 사업도 선보였다. 이번에 미국 증시에서 흥행에 성공한 것도 이런 투자와 성장 가능성이 있기에 가능했다.

김 의장은 “1960년 한국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79달러에 불과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지만 오늘날은 세계 10대 경제국이 됐다”며 “한국인들의 창의성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냈고,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이야기의 작은 부분이 될 수 있다는 데 너무나 기쁘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 “소중한 꿈이 현실로”...롯데월드 환아 꿈 도전 프로젝트 ‘드림플라이’

‘노래로 희망전달’ 송유진 양의 꿈 지원 태연의 ‘사계’ 등 2곡 음원제작 발매 ‘드림업 캠페인’ 통해 사회공헌 활동



‘드림플라이’ 주인공 송유진 양(가운데)에게 드림기프트를 전달하는 드림서포터즈(위 사진), 환아를 위해 병원을 방문해 공연하는 ‘찾아가는 테마파크’, 롯데월드가 ‘드림업 캠페인’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 | 롯데월드

13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대표 최홍훈) 내 웰빙센터 로티홀에서는 한 소녀의 소박하지만 진정 어린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 가수 태연의 ‘사계’와 롯데월드가 소아암 인식개선 캠페인을 위해 만든 ‘별들의 이야기’다. 노래를 부른 주인공은 송유진(가명·17세)양. 이날은 그녀가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던 소원이 이루어지는 ‘드림 컴 트루(dream come true)’의 순간이었다.

이번 행사는 롯데월드의 ‘드림플라이’ 프로젝트 성료를 알리는 ‘드림데이’의 자리였다. ‘드림플라이’는 투병 생활로 지친 환아의 소망을 롯데월드 임직원으로부터 드림서포터즈들이 현실로 이루도록 지원하는 활동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해 7월 대상자 모집부터 시작해 장장 9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드림플라이’ 주인공 송유진 양은 노래를 통해 상처받고 낙담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을 꿈꾸어 왔다. 하지만 음악을 배워본 적도, 해본 적도 없어 무엇

부터 시작할지 몰랐다. 그래서 드림서포터즈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드림서포터즈는 코로나19로 직접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송유진 양과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만남을 이어갔다. 그리고 2월 보컬 트레이닝과 스튜디오 녹음을 거

쳐 송유진 양이 가장 좋아하는 ‘사계’와 2017년 롯데월드 소아암인식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발매한 합창곡 ‘별들의 이야기’를 부른 음원을 제작했다. 이번엔 녹음한 ‘별들의 이야기’는 추후 발매할 예정이다.

이날 로티홀에서는 송유진 양이 부른 ‘사계’, ‘별들의 이야기’ 음원과 함께 그동안의 과정을 담은 뮤직비디오 형태의 영상도 함께 공개됐다.

최홍훈 롯데월드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드림업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30년 간 롯데월드가 받은 사랑을 나눔으로 보답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월드는 ‘드림업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무료초청 프로그램인 ‘드림터켓’으로 연간 1만 5000여 명의 소외계층이 테마파크, 아쿠아리움, 전망대를 방문했고 직업 체험 프로그램인 ‘드림 Job’을 통해 2000여 명의 송파구 및 백지지역 청소년들이 직업 체험 기회를 얻고 있다. 이외에 환아를 위해 병원을 방문해 공연을 하는 ‘찾아가는 테마파크’, 큰 무대에서 공연하고 싶은 소아암 어린이의 소원을 이뤄주는 ‘드림 Stage’ 등 테마파크 특성을 살린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 건강올레길 | 우리 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 젊은층 환자도 늘어난 퇴행성관절염 콘주란 주사로 완화...의료보험 부담 ↓

주로 노화와 과사용이 원인인 무릎 관절염은 노화가 진행되면서 유병률이 점차 높아진다. 최근에는 격한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젊은 층에서도 무릎 관절염 증상이 관찰되고 있다.

퇴행성관절염 초기에는 연골이 경미하게 손상되어 걸을 때 처음에는 아프지만 조금 걸으면 괜찮아진다.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지며 오래 앉아있다 일어서면 무릎이 뻣뻣해짐을 느낀다. 증상이 호전됐다가 나빠지는 간헐적인 경과를 보이고 방치하면 통증이 만성으로 악화될 수 있다.

퇴행성관절염이 진행되면 관절 모양의 변형과 함께 걸음걸이에 이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대개 무릎 바깥쪽보다 안쪽에서 통증이 나타난다. 연골 손상이 심하지 않은 초기나 중기라면 체중조절과 운동, 약물치료, 물리치료, 연골주사치료, 콘주란주사치료, 체외충격파, 도수치료 등 비수술적인 치료를 통해 호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말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이 불가피하다.

최근에는 콘주란 주사가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은 무릎관절염 비수술 치료 방법으로 2020년 3월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되어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콘주란은 연어 생식 세포에서 추출한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PN)을 주성분으로 한 주사다. PN 성분은 인체에 존재하는 DNA 성분과 동일한 것으로 각종 성장인자의 분비를 촉진하며, 염증 완화 및 조직재생에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퇴행성관절염 말기에는 기대만큼 통증완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어 담당의의 진단과 충분한 상담 이후 시행돼야 한다. 환관손상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임상경험이 풍부한 전문의의 진단의 정형외과를 선택해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김기 정대바른정형외과의원  
강경구 원장(정형외과 전문의)

## GS, 사업목적에 금융업 추가...CVC 설립 본격화

GS그룹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설립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GS그룹의 지주사인 GS는 12일 이사회를 열고 29일 주주총회에 금융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향후 CVC를 설립하기 위해 사전에 정관을 변경해 놓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과 산업간 상호 소유나 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인 CVC를 보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일반 지주사의 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주사는 CVC를 완전 자회사 형태로 보유할 수 있게 됐다. GS 측은 “올해 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CVC 보유가 허용됨에 따라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 포스코건설, 아산 ‘더샵 센트로’ 분양 돌입



‘더샵 센트로’ 투시도

포스코건설이 충남 아산시 배방읍 복수리 389번지 일원에 지상 최고 28층, 11개동, 전용면적 76~106㎡, 총 939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더샵 센트로’의 청약접수에 들어간다. 2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3일 1순위, 24일 2순위 청약이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30일이며, 정당계약은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된다. 더샵 센트로에는 타입별로 ▲76㎡A 35세대 ▲76㎡B 80세대 ▲84㎡A 369세대 ▲84㎡B 186세대 ▲84㎡C 196세대 ▲106㎡ 73세대로 구성되고 입주는 2023년 10월 예정이다.

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